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감 필요하다



홍성장
사회부장
seonjiang.hong@jnilbo.com

‘퀴어(queer)’. 사전적 의미는 ‘기묘한’ 혹은 ‘괴상한’이라는 의미다. 동성애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할 때 사용됐다. 그러나 80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본래의 부정적 의미가 사라졌다. 이후 ‘퀴어’는 동성애자는 물론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 단어로 사용됐다. 성 소수자는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와 구분되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이들이다.

‘무지개 깃발’도 있다.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다. ‘성 소수자의 다양성’이란 의미가 담겼다. 처음에는 성 소수자 퍼레이드 등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현재는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다.

‘퀴어문화축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성 소수자들의 행사다. 전세계적으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의 한 종류다.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도 불리며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벌이는 행진이다.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열렸다. 현재는 서울을 물론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인천, 전주, 제주, 청주에서 열리고 있

다.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처음 열렸다. ‘제1회 광주퀴어문화축제’다. ‘광퀴’라고도 불리는 행사다. 기억이 선명하다. 지난해 10월 21일, 5·18민주광장이었다. 꽤 시끄러웠던 기억이다. 퀴어축제 당일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고, 행진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방해를 시도하거나 행진을 가로막기 위해 도로에 드러누워도 했다. 광주에서의 첫 퀴어축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의미’보다는 ‘잔란 갈등’이 더 눈쟁의 중심이었다. 언론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퀴어축제의 의미나 주제는 뒷전에 밀렸다. 첫 광주퀴어축제의 주제였던 ‘광주, 무지개로 빛나다’는 주목받지 못했다. 무지개처럼 성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해달라는 그런 의미였다.

올해 다시 광주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오는 26일 광주 금남로다. 벌써 논란이다.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한때 광주 동구청 건설과에 민원이 빚발쳤다. 동구청 건설과는 도로점용 허가권자다. 지난해 퀴어축제 맞불 집회를 열었던 단체에서 다시 맞불 집회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주최 측은 꽤 오랜 시간동안 제2회 광주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밝히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퀴어에 대한 여전히 ‘불편한 시선’, ‘애매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퀴어문화축제의 의미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2회 광주퀴어문화축제의 주제 역시 ‘밝히는 퀴어’다.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밝힌다’는 뜻과 함께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쪽이 쓰여는 ‘성소수자는 음란하다’는 편견을 ‘밝힌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래서 더 아쉽다.

“광주에서 언제 어디서 개최하는지 공지도 없는 이 행사, 광주 시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글이다. 광주퀴어문화축제 일이 다가온 현재는 주최 측이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기를 했다. 10월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남로 차 있는 거리’다.

“퀴어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성애자라 생각하지만 결코 이성애자가 아닐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는 어릴 때부터 낀 남자와 낀 여자야. 그러나 이성을 만나야 해 라고 하는 교육, 또는 사회의 시스템에서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어렵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공감 가는 글귀다. 역시 광주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이 출처다.

바람이 더 있다. ‘다름’에 대한 인정과 소통, 그리고 공감이다. 퀴어축제 찬반이 논쟁거리가 아니라, 더 많은 다양성을 담아내는 축제로 만드는 데 대한 ‘광주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다양한 인권을 담아내고, 지역사회와 소통, ‘퀴어’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의 인권을 위한 축제가 대한 ‘인권도시 광주다운 고민’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다.

가족



유순남
수필가

얼마 전 서울에 사는 첫 직장동료들이 “수도권에 사는 제자들에게서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0년이 넘는 제자들이다. 마침 그 무렵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동료들과 제자들은 필자의 일정에 맞춰 날을 잡아주었다. 까까머리 앨범 사진을 보면서 현재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았다. 벌써 회사의 중역을 맡거나 개인회사를 경영하는 대표가 되어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열일곱 청춘일 때의 남학생으로 돌아가 그 옛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추억해냈다. “노란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교정에 하늘하늘 걷는 선생님 뒷모습을 보다 겨우 중이비행기를 날렸어요.”,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날까? 기대하며 운동장으로 자꾸 눈이 갔어요.” 하며 맑게 웃었다. 그들의 눈은 은행잎이 사운거리는 그때의 그 운동장을 보고 있는 듯했다. 한동안 그렇게 아련한 옛 얘기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학창시절 알게였던

한 제자가 ‘기본 좋은 이야기’라며 자기 가족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두 번째 가정을 꾸릴 때, 처음에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전처에게 맡기고, 둘째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매일 밤 헤어져 아이들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두 번째 아내와 아이 한명을 더 낳아 별명인 ‘유치원 원장’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곱 식구 건사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 벌써 군입대를 했다고 한다.

전처와의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갔는데, 그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걱정되었단다. 그들이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배지를 받던 날, 건설자재를 만들어 시공하는 자기사업을 물려 줄 마음으로 “시간 날 때 읽어보면 좋겠다.”며 사업에 필요한 책들을 주자, 아무 말 없이 책을 받아들고 부대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두 시간 가까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아들은 재혼 후 15년 동안 자기에게 호칭 한번 부르지 않고 필요한 말만 했다고 한다. 그런 아들에게 비록 아내를 통한 문자일지라도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감사스러웠다고 한다. 코끝이 찡했다.

부모가 다른 다섯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딱 하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복잡한 작은 사회의 중심에서 서서 고르게 보살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불화를 잘 잠재워야 하고, 칭찬이나 사랑도 적절히 나누며, 부족한 부분을 챙기고, 가정을 안락하고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 애썼을 그 제자가 진정으로 대단해 보였다.

그는 자기 아이들이 “어찌라고?!”하며 반항해도 귀엽다고 한다. 그를 그렇게 큰 그릇으로 만든 것은 분명 여러 명의 아이들이 때문이었으리라. ‘아이를 기르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어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자식은 때로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제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아이들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도 버거워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 건가?

요즘은 가족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 제자와 같은 가정, 부부와 혈연관계인 자식과 입양한 자식이 함께 사는 가정, 자식 모두가 입양아인 가정, 성인이 된 후 두 명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이루어진 가정 등 미래에는 좀 더 다양한 가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구성원이 어떤 관계냐?’와는 상관없이 가족 상호간에 서로가 가족 구성원의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노력할 때, 가정은 좀 더 따뜻해지고, 사회 또한 밝아지리라 믿는다.

발언대

본격적인 단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산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우선, 산행 전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등산 전후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놀라, 관절에 무리가 가서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등산 코스와 시간을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 가을은 여름과 다르게 해가 짧기

가을 산행, 안전하게 즐기자

때문에 등산을 할 때 우선 등산 코스를 파악하고 코스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낮의 길이가 짧아진 만큼 일찍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여분의 옷과 비상식량 준비해야 한다. 등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체온 유지이다. 등산을 하다보면 땀이 나는데 요즘같이 바람이 찬 날씨는 이뉰 중이겨나 날 때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분의 옷과 열량 보충을 위한 비상식량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넷째, 찻뜨기(무시증)를 조심해야 한다. 찻

찻뜨기(무시증)는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

하는 질환인데 주로 가을철에 발생하며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찻뜨기(무시증)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중에는 소매는 단단히 묶어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넣어 최대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풀밭에 옷을 벗어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산할 때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내리막길은 오르막길 보다 걸음이 빨라지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디 부상을 당하는 일도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 (e-메일) webmaster@jnilbo.com

社說

세계한상대회 활용 호남 네트워크 구축해야

오늘부터 3일간 여수서 개최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기업인(韓僑)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교류하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韓僑)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상 대회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상 1000여 명과 국내 경제인 등 총 4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세계 한상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 역할을 해왔다. 2002년 시작할 때만 해도 참가자가 400명에 그렸는데 작년엔 4500명 이상으로 늘었을 정도로 위상이 매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한상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회 기간에는 ‘한상·국내 기업간 1대1 비즈니스 미팅’, ‘기업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한상 비전 콘서트’ 등이 열린다. 또 일자리박람회에서는 한상 기

업 청년 채용 인턴십 현장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계 한상대회를 통해 전남은 최대한 많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 개최 도시 여수는 이번 한상대회를 기점으로 마이스(MICE)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관광객이 한 해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컨벤션 시설과 호텔이 크게 증가하는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마이스 산업 거점이 될만한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췄다.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절실한 전남은 이번 세계한상대회를 호남 출신 한상과 지역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외 거주 한국인 740만 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27%인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호남 한상의 기반은 탄탄하다. 호남 출신 한상들은 향우회를 중심으로 매년 ‘세계 호남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기업인뿐만 아니라 전남 지자체와 정치인, 호남 향우회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

일본 하늘길 막힌 무안공항, 대체 노선 다변화를

이달 말 도쿄·오사카도 운항 중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이 모두 막힌다. 올해 상반기 일본 기타큐슈·오이타·후쿠오카 노선이 차례로 폐쇄된 데 이어 운항 횟수를 줄였던 도쿄와 오사카 노선까지 곧 중단된다. 제주항공이 운항한 무안공항-도쿄·오사카 노선은 올해 상반기 주 7차례 매일 운항했지만, 하반기 들어 주 4차례로 운항 횟수를 줄였고 동절기를 앞두고 이달 말 결국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이 맡았던 무안공항-일본 노선이 잇따라 운항 중단을 한 것은 탑승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보복이 표면화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까지도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중 일본 노선 이용객은 전체 32%에 달했다. 이 기간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35만 8000여 명으로 이중 일본 노선 이용객은 11만 3000명이나 됐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9월 탑승률은 도쿄 29.9%, 오사카 25.2%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노선 중단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 올해 누적 이용객 수는 9월 들어 역대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선다는 예상이다. 무안공항의 목표 달성률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월 한 달간 이용객 수가 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1000여 명이나 많지만 전담인 8월 이용객 수 10만 3000명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무안공항이 일본 노선 중단으로 인한 승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노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무안공항은 중국 연지(延吉) 노선과 장자제(張家峯) 신규 노선을 취항할 데 이어 다음 달 초 중국 하이난 산야 노선·12월 판 노선도 취항할 예정이다. 또 필리핀 국제 펜파시픽항공이 오는 12월 22일부터 무안과 필리핀 휴양 도시인 클락을 잇는 직항 노선을 주 2회(목·일) 취항한다. 신규 취항한 노선을 활성화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노선을 확대해야 올해 100만 명 이용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서석대

‘인공지능(AI)’과 ‘무등산수박’의 연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무등산수박’은 이용성 광주시장을 매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얘기다. 광주시는 침체된 지역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공지능 집중 육성책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이용성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의 두 번째 핵심은 ‘인공지능’과 ‘무등산수박’의 연관성이다. 인공지능과 무등산수박은 무등산수박이 설명은 이쯤 하고, 인공지능이 무등산수박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말하고자 한다. 여기엔 현재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인공지능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문주 박사를 광주시의 명예기술고문으로 위촉하기까지 뒷배기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공지는 핵심기술 기업 이전, 실리콘밸리와는 네트워킹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직접 호텔까지 찾아온 이 시장의 정성이 통했는지, 김 박사는 “나의 기술협력이 광주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기술고문직을 받아들였다.

이 시장은 “타 지자체보다 앞서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해 너무 기쁘다”면서도 “다만 기술고문으로서 어느 정도 보상과 대우를 해드려야 할 지 걱정도 앞섰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때 광주시의 고민을 덜어준 김 박사의 한마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광주가 무등산수박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해마다 무등산 수박 몇 통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였다. 광주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산업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김문주 박사의 영입이 무등산수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무등산 기술에서만 자라는 무등산수박은 타 지역 수박은 따라올 수 없는 특유의 향과 감칠맛을 자랑한다. 무등산수박과 기분 좋은 인연을 맺은 광주의 인공지능 연관 산업과 김문주 박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백성원 정치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주필 박상수	편집국장 김기종
민주주의 구현	대표전화 (062)527-0015	편집부 (062)510-0319	문화체육부 (062)510-0368	
진실모도 실천	기자재보 (062)510-0331	정치부 (062)510-0401	전남취재부 (062)510-0340	
지역개발 선도	경영재무국 (062)510-0421	사회부 (062)510-0331	사건부 (062)510-0391	
www.jnilbo.com	사업광고부 (062)519-0730	경제부 (062)510-0336	디지털본부 (062)510-0368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9-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